

도, 청년 스마트팜에 858억원 '통 큰 투자'

2031년까지 인구감소지역 정착 청년농 대상, 스마트팜 시설비·전문가 컨설팅·기술교육 등 지원 안정적 정착 유도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청년 창업 농 육성을 위해 10년간 858억원을 투자한다. 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발굴 사업인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에 정착을 결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시설원에 스마트팜 일체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시군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을 제외한 도내 11개 시·군이다. 지원대상은 개소당 440백만 원 정도다. 지원내용은 부지 기반조성, 온실 건축, 재배시설, 냉난방시설 등이다.

또한, 올해 15개소 조성에 68억 원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20개소 조성에 88억 원을 투자하는 등 2031년까지 858억 원 투자해 195개소의 청년 스마트팜을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감소가 우려되는 시·군에 타시도 청년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농촌의 젊은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돈버는 젊은 농촌'을 조성한다.

전북도는 스마트팜 시설 지원과 동시에 청년의 안정적 정착과 청년 리더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기술교육, 지역주민과의 융화교육 등을 병행하고, 사업대상자 선정 시점

부터 농업경영이 안정화될때까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시행해 청년농의 농촌정착을 돕는다.

청년창업농이 스마트팜을 조성하기 전에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시설에 대한 전문지식과 재배작물 선택, 유통방안 등으로 습득하고, 지역정착에 필요한 리더교육과 갈등관리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농촌의 고령화로 청년농업인이 공감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정기적인 모임 등 청년농업인들의 상생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9월 2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서류와 대면평가를 통해 9월말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북도의 858억 원 투자 결정은 전국에서 유례없는 청년 창업농 스마트팜 육성 규모"라며, "고령화가 심화되는 '농촌'이 전라북도에서는 청년의 창업이 성공하는 공간 돈 버는 중견 농업인으로 성장이 가능한 공간 가족과 함께 누리는 공간으로 변화되어 갈 나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지능형 농기계 산업 발전방향 논의

도내 농기계, 상반기 2억7000만불 벌어들여... 효자 수출상품 2027년 새만금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 예정

전북도는 23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능형 농기계 연구그룹,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TYM(舊 동양물산) 익산공장을 방문해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활용과 미래 농기계산업 발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에서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운영 활성화 논의 외에도 현행 자율주행 농기계 수준과 친환경 트랙터 개발 등 농기계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폭넓은 대화가 이뤄졌다.

또한, 트랙터 생산설비 현장 관계자 소통과 첨단기술 시연으로 지능형 농기계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전북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농기계 기업, 혁신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전북의 대표 효자 수출상품인 도내 농기계 수출액은 2억 7,423만불로 전년 동기대비32.3% 가

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의 최대 수출국인 미국에서 상반기 수출액 8억 6,422만불 중 농기계가 2억 3,288만불인 27%를 차지하고 전북 농기계 수출액의 85%를 미국에서 소화하는 등 '전북산 K-농기계'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가 내년도 기본 및 실시시설을 통해 '27년 완공되면 TYM을 비롯한 농기계 기업이 신규 첨단농기계 개발을 위한 전주기 농작업 공간 및 시험·평가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명실상부한 농기계 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 전대식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의 실 수요자인 기업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행정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도, 군산항서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

김관영 도지사, 관계자 격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3일 군산항에서 열린 '2022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에 참석해 준비상황 점검을 점검하고, 훈련에 참가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및 각종 테러를 대비하는 민·관·군·경의 통합적 사태수습 능력 배양이 목적이다.

도와 군산시를 비롯해 공공기관, 군·경·소방 및 유관기관 등 11개 기관 250여 명과 헬기 해경경비함정 등 다양한 장비가 동원됐다.

특히, '적 드론 공격으로 해경경비함정 화재발생과 화학물질 살포'라는 상

황을 가정해 이에 따른 사상자구조, 화재진압, 적 특수부대 교전 등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할 정도의 모습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평시 발생 가능한 모든 위기상황에 충분한 훈련을 통해 완벽한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모든 기관들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종 계획 점검 및 협력 체계를 굳건히 유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훈련을 위해 힘써 주신 모든 기관 및 관계자들에게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김관영 도지사는 23일 군산항에서 열린 '2022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에 참석해 준비상황 점검을 점검하고, 훈련에 참가한 관계자들을 격려했고 있다.

"추석 벌초 대행 서비스 이용하세요"

13개 시군지역 산림조합에 전화·방문·인터넷 등 통해 접수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벌초, 묘지관리 등으로 인한 이동인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조합 벌초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림조합은 산림분야 전문기관으로서 벌초, 잔디 보수, 훼손지 복구와 묘지 조경 등 묘지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위성항법장치(GPS) 및 묘지이력관리시스템으로 실묘(失墓)를 방지하는 물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묘지관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벌초 도우미 서비스는 묘지가 소재한 각 지역 산림조합에 전화 또는 인터넷(<http://iforest.nfcf.or.kr>), 모바일(m.nfcf.or.kr)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사용료는 현지 여건을 반영한 각 조합별 자체 기준으로 단가를 책정했으며 면적, 거리, 묘지의 수, 주변 여건 등에 따라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 산림조합원(지역 불문)의 경우 10%, 3년 이상 연속 벌초 의뢰할 경우 5% 할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벌초대행 서비스는 추석 연휴 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 새만금 중심 디지털 혁신거점에 '전북형 실리콘밸리' 조성

새만금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산학연관 전문가 참석해 사업 기획·연구용역 의견 교환 등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지난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정책'에 맞춰 시행하는 '새만금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정책'은 지난 7월 19일 지역 디지털정책협의회(과기정정부 2차관 주재)에서 발표한 사업으로, 디지털 기업과 인재의 수도권 풀림을 극복하기 위해 관교 테크노밸리에 준하는 디지털 혁신거점을 지역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북도는 과기정통부의 정책을 기회 삼아 지역의 열악한 디지털 생태계를

복원하고, 정보통신기술 및 SW기업을 도와시켜 디지털 신산업이 태동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응할 복안이다.

특히 디지털 혁신거점과 합(合)이 좋은 '서해안 데이터센터 집적지 조성'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된 만큼, 국정과제에도 적극 연계해 공모 대응에 내실을 기한다는 전략이다.

전북도는 그간 디지털 산업의 핵심인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즉 DNA, 관련 기술이 융합되어 수도권에 의지했으나, 혁신지구가 조성된다면 자체적으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인근 지역으로의 디지털 기술을 전파하는 거

점으로서 지위를 갖는다.

새만금 혁신지구 조성사업은 데이터 기반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및 디지털 융합 종합지원 집적단지 조성 등 농생 명분야 융합산업 기술개발 및 실증을 기반으로 정보통신기술·SW기업 사업화 지원 등의 디지털 혁신거점을 구축해 전북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농생명 분야에 초점을 맞춰 집중 육성하고 이후 주력산업 분야를 거쳐 전 산업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

한편 새만금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이 되는 만큼, 이번 연구용역은 사업 수주를 위한 세부 전략을 마련하고 타당성 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등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한 중요한 첫 관문이다.

전북도는 성공적인 용역을 위해 지역 관계기관, 대학, 시·군 지자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북에 필요한 인프라와 실증사업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이번 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전북도, 약수터 수질·시설관리 점검 실시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약수터 이용객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약수터 수질 및 시설관리 등을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점검기간은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시장·군수가 지정한 읍은목, 완산철봉 등 도내 약수터 9개소가 점검대상이다.

점검사항은 △약수터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여부, △물탱크, 배관 및 음수대 청결 상태, △주변 오염원 존재 및 시설 보수 등 적정 관리 여부다.

분석 결과는 현장에 설치한 약수터 안내판과 토양지하수 정보시스템(<https://sgsin.nier.gokr>)을 통해 대국민에게 공개한다. /김경수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